



MB "병명만 9개, 돌연사 가능성"...석방 거듭 요청 "괴병 오해시킬까 그동안 병세 침야"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수면무호흡증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석방을 거듭 요청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추가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병명만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 당뇨병 등 9개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 "수면무호흡증은 이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앓아왔던 수면장애와 동반한 증상으로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겨 수면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면서 "의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보는 일반인의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돌연사와의 연관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백혈구 수치가 지나치게 높음이 밝혀져 구치소 담당 의사가 긴급하게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괴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살 것이 열려째 그동안 병세를 자세히 밝히지 않고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합의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속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 재판부나 구성원이 변경됐고 수사·증거기록만 10만쪽이 넘어 이에 해당한다"며 "보석 청구 이유는 충실한 심리를 해달라는 취지다. 2개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졸속심리를 하자는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4월9일 0시에 항소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항소심의 구속기간은 4개월이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지난달 31일 한차례 더 연장된 상태다

현재 탄핵 결정 2년이 지났는데...

# 정치권 차 탄핵 논쟁 재연

황교안 "정치적 책임성 묻어 탄핵 결정 타당치 못해"

민주당 "차지지자, 극우세력 등에 업고자 국민 모독"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각종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서 정당성 논쟁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친정인' 자유한국당은 탄핵 직후 당론으로 탄핵을 수용했으나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2년만에 다시 시도된 탄핵 뒤집기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전 당대회가 친박(황교안·김진태)과 비박(오세훈) 구도로 고착되면서 '탄핵 때리기'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이 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라는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가 유력 당권주자로 떠오르면서 탄핵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그간 탄핵을 비판해온 김진태 후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는 질문에 대해 X를 들며 탄핵 반대외사를 표시했다 한국당 당권 주자 3인방 중 오

세훈 후보만 탄핵에 찬성했다 황 후보는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성을 묻어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이 타당하다는 부분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년 전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지금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했던 황 전 총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 '탄핵 부당'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론으로 현재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당권주자들이 이를 허무는 모양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 우택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황 전 총리 등의 탄핵 뒤집기에 일제히

사과를 요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정면 도전하더니 이제는 황 전 총리 등 당권주자들이 앞다뉘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힐난했다

이어 "황 전 총리도 당시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현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자 국민을 모독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박근혜 국정농단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시인한 황 전 총리는 제야당의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탄핵은 법적 정치적 절차가 완결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로서 그에 딱 맞는 징계와 분색을 드러냈다. 사실상 도로 박근혜당 회귀 선언"이라며 "황 전 총리의 탄핵 부정은 최고 사법기관인 현재 판결을 불복하고 나타난 나라를 만들겠다고 추세를 둔 국민에 대한 부정이자 모독"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현재는 지난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련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文 '5·18 망언' 비판에 광주 민주화 원로 "국민이 힘 얻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30년 넘게 싸워왔던 안성례(82)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 전 관장은 20일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른 13명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장 및 광주 시민사회 원로들과 함께 청와대를 찾았다

안 전 관장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특별히 개별 안내를 받을 정도로 광주민주화 운동 역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차례인 안 전 관장과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한 뒤, 친근감의 표시로 자신의 왼손으로 안 전 관장의 등을 살파 감싸기도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화두가 된 것은 이틀 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때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文대통령에 각별한 인사

자리 착석과 동시에 5·18 망언 비판 대통령 발언 화두로

사에 상징적인 인물이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기독교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안 전 관장은 수많은 광주시민들을 치료한 것을 계기로 이후 세월을 진상규명을 위해 헌신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2017년 5월 대통령 당선 직후 처음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기념사와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념사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왜곡·폄하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안 전 관장은 이러한 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오찬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쉼없는 두 열개 들어온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예우를 갖추며 악수와

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2017년 5월 대통령 당선 직후 처음 맞이한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기념사와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념사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왜곡·폄하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안 전 관장은 이러한 문 대통령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오찬이 시작되기 전에 관련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국민이 힘을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쉼없는 두 열개 들어온 문 대통령은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예우를 갖추며 악수와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김관영 "거대양당, 정략적 이해관계 버리고 국회 정상화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정략적 이해관계는 버리고 오늘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은 과거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인해 우리경제와 민생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준 당사자"라며 "과거에 대해 반성도 없고 야당이 된 이후로는 민생은 쳐다보지도 않기로 작정한 것 같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즉시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민생은 더더러도 여당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곳"이라고 했다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